

5/6/18

설교 제목: 사도 바울의 경고와 승리에 대한 예언

전하는 이: 김순배 강도사

말씀: 로마서 16: 17-27

- (롬 16:17)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배운 교훈을 거슬러 분쟁을 일으키거나 거치게 하는 자들을 살피고 그들에게서 떠나라 **절관주** 고전 1:10
- (롬 16:18) 이같은 자들은 우리 주 그리스도를 섬기지 아니하고 다만 자기들의 배만 섬기나니 교활한 말과 아첨하는 말로 순진한 자들의 마음을 미혹하느니라
- (롬 16:19) 너희의 순종함이 모든 사람에게 들리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로 말미암아 기뻐하노니 너희가 선한 데 지혜롭고 악한 데 미련하기를 원하노라
- (롬 16:20)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탄을 너희 발 아래에서 상하게 하시리라 우리 주 예수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사도 바울은 아직 한 번도 대면해서 본 적이 없는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정중하게 예의를 갖추어 조심스럽게 편지를 썼습니다.

그러나 편지를 마무리 하면서 노파심에서 어쩔 수 없이 경고와 권면을 곁들입니다.

사랑하고 아끼기 때문에 잔소리도 하고 쓴소리도 하며 또 잔소리 쓴소리만 하면 부담스러워 할까봐 승리의 확신도 함께 심어 줍니다.

로마 교회 성도들로 하여금 자신이 권하고 경고한 말을 잘 지키게 할 뿐더러 소망도 품게 하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12 장부터 성도가 세상을 살아가는데 있어 지켜야 할 삶의 지침을 말해 왔습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서로 사랑하고 우애하고 존경하여 교회 안에서 하나가 되어야 한다고, 그러기 위해서 믿음이 강한 자는 믿음이 연약한 자를 받아주고 비판하지 말며 그들의 약점을 담당해 주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본문을 첨부합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먼저 경고와 권면을 합니다.

1. 사도 바울은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복음을 거슬러 분쟁을 일으키고 거치게 하는 자들로부터 떠나라고 합니다.

(롬 16:17)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배운 교훈을 거슬러 분쟁을 일으키거나 거치게 하는 자들을 살피고 그들에게서 떠나라

너희가 배운 교훈이란 사도 바울이 1 장부터 11 장까지 기록한 복음의 진리를 말합니다.

하나님은 사도 바울에게 영원 전부터 숨겨진 복음을 계시하여 알게 하셔서 신약 14 권을 기록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이 가르친 복음과 어긋나는 것을 주장하는 것이 바로 이단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 편지를 쓰고 있는 1 세기 당시에 유대교 율법주의자, 영지주의자, 신비주의자, 거짓 선지자, 거짓 기적을 행하는 자, 에비온파, 가현설주의자, 행위 구원설주의자 등의 이단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교회 안에 들어와서 사도 바울이 가르친 복음에 도전하고 성도들을 미혹하였으며 그 결과로 많은 성도들이 넘어졌습니다.

이 중 가장 득세했던 이단이 영지주의자와 유대교 율법주의자였습니다.

영지주의자는 처음 3 세기동안 초기 교회를 위협했던 가장 위험한 이단이었습니다.

영지주의자들은 구원이 특별한 영의 지식(그노시스 Gnosis)을 통해 얻어진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들은 영과 육을 분리하여 이원론을 주장했으며 영에 속한 것은 무조건 선하고 좋은 것으로 육에 속한 것은 무조건 악하고 더러운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이렇게 영적인 것만을 중요시 하다보니 예수님의 인성도 부인하였습니다.

또한 육을 무조건 더러운 것으로 치부하여 극단적인 금욕주의자가 되거나 아니면 육은 아무것도 아니니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고 생각하여 비도덕적인 쾌락주의자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동생 유다는 유다서를 통해 이런 영지주의자들을 강력하게 비판했습니다.

(유 1:4) 이는 가만히 들어온 사람 몇이 있음이라 그들은 옛적부터 이 판결을 받기로 미리 기록된 자니 경건하지 아니하여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도리어 방탕한 것으로 바꾸고 홀로 하나이신 주재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니라

- (유 1:5) 너희가 본래 모든 사실을 알고 있으나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고자 하노라 주께서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하여 내시고 후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멸하셨으며
- (유 1:6) 또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으며
- (유 1:7) 소돔과 고모라와 그 이웃 도시들도 그들과 같은 행동으로 음란하며 다른 육체를 따라 가다가 영원한 불의 형벌을 받음으로 거울이 되었느니라
- (유 1:19) 이 사람들은 분열을 일으키는 자며 육에 속한 자며 성령이 없는 자니라

유다는 교회에 은밀하게 들어와 사람들의 마음을 도적질해서 성도들 사이에 분쟁을 일으키고 당을 짓게 하여 하나님의 교회를 계속 무너뜨리는 자들, 특별히 영지주의자들을 가리켜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들이라고 합니다.

또한 유다는 이들의 운명은 이미 정해졌다고 말하는데 광야에서 멸망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본디 천사였다가 하나님을 배반하고 악령이 된 존재들처럼, 동성연애 간음 등의 음란을 행하여 유향 불의 심판을 받은 소돔과 고모라 땅에 살던 사람들처럼 멸망할 것을 판결 받았다고 선포합니다.

또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개종한 교인 중에 율법주의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기독교로 개종을 하고서도 아직도 율법주의적인 사고를 버리지 못하고 앞 장에서 본 것과 같이 절기나 음식 문제로 성도들 사이에 분열과 분쟁을 일으켰습니다.

교회는 서로 다른 배경을 갖고 있는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연합하여 하나가 되는 곳입니다.

그러나 이단들은 분열과 분쟁으로 교회의 하나됨을 깨뜨립니다.

그들을 단번에 떠나야 하는 이유입니다.

사도 바울은 거치게 하는 자들로부터도 떠나라고 말합니다.

‘거치게 하는 자들’이란 교회 내에 믿음이 연약한 성도들을 미혹하여 넘어지게 하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거치게 하는 자들에 대해 예수님께서 하신 경고의 말씀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막 9:42) 또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들 중 하나라도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맷돌이 그 목에 매여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나으리라

그런데 사도 바울의 경고를 보면서 여지껏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더니 지금은 이런 이들로부터
당장 떠나라고 단호하게 말하는 것이 논리가 맞지 않다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바로 그 이유를 설명합니다.

(롬 16:18) 이같은 자들은 우리 주 그리스도를 섬기지 아니하고 다만 자기들의 배만 섬기나니
교활한 말과 아첨하는 말로 순진한 자들의 마음을 미혹하느니라

이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대신 돈을 신으로 섬기는 자들입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나라에는 관심이 없고 돈에만 온통 관심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종이 아니고 돈에 종된 사람들입니다.

이런 자들은 교활한 말과 아첨하는 말로 순진한 자들의 마음을 미혹합니다.

성도들의 마음을 얻어 자신의 배를 불리기 위해 복음이 아닌 거짓을 성도들에게 말합니다.

거짓 선지자들은 이리의 모습을 숨기고 양의 털을 쓰고 접근합니다.

이런 자들의 말은 부담스럽지 않고 부드럽고 달콤합니다.

반면 복음의 진리는 항상 달콤하기만 하지는 않습니다.

칭찬과 위로도 있지만 필요할 때는 훈계와 책망도 있습니다.

때로는 부담스럽기도 하고 때로는 우리의 마음을 쳐서 아프게 하기도 합니다.

몸에 좋은 약은 입에 쓴 법입니다.

이런 자들을 살펴서 분별하는 방법으로 그들의 열매를 보면 됩니다.

열매는 언제나 정직하게 말합니다.

좋은 나무에는 반드시 좋은 열매가, 나쁜 나무에는 반드시 나쁜 열매가 달리기 마련입니다.

(마 7:15)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아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이리라

(마 7:16)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마 7:17)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마 7:18)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사도 바울은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경고와 권면을 한 후 이어서 칭찬과 격려도 해줌으로써 채찍과 당근을 동시에 사용합니다.

(롬 16:19) 너희의 순종함이 모든 사람에게 들리는지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로 말미암아 기뻐하노니 너희가 선한 데 지혜롭고 악한 데 미련하기를 원하노라

사도 바울은 로마 교회로 말미암아 기뻐한다고 칭찬합니다.

로마 교회는 사도 바울이 기뻐할 만큼 아름답고 모범적인 교회였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런 로마 교회를 가리켜 앞 장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롬 15:14) 내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선함이 가득하고 모든 지식이 차서 능히 서로 권하는 자임을 나도 확신하노라

로마 교회는 윤리적으로 선함이 가득하고 지식적으로 충만하며 사역적으로 서로 돕고 권하고 세워주는 교회 복음에 순종하는 교회였습니다.

그렇지라도 사단의 훼방을 피해갈 수는 없습니다.

사단은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아 두루 다닙니다.

사단은 항상 성도를 미혹하여 넘어뜨리려 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흔들어 분열시키려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교회에 이러한 사단의 역사가 있음을 늘 기억하고 경계해야 합니다.

기도로 준비하여 사단의 역사를 막고 대적하여 싸워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선한 것에 대해서는 지혜롭고 악한 것에 대해서는 미련하라고 말합니다.

선한 것은 복음을 말합니다.

미련하라는 말은 몰라도 된다는 의미입니다.

복음에 지혜롭고 진리가 아닌 세상 것은 무시하라는 말입니다.

소탐대실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작은 것을 탐하다가 큰 것을 잃어 버리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작은 것은 세상 것들입니다.

큰 것은 하늘에 것들입니다.

내일 일, 아니 바로 다음 순간의 일도 모르는 바보가 인간입니다.

그런데 바보인 인간이 자신이 바보인 줄 모르고 세상에서 가장 똑똑하고 잘 낫다고 생각하며 복음의 진리를 무시하고 자신의 소견에 옳은대로 행동하고 삽니다.

하긴 자기 자신이 바보라는 것을 알면 더 이상 바보가 아니겠지요.

우리의 인생은 당장은 좀 손해를 보는 것 같아도 복음에 순종하면서 사는 것이 가장 아름답고 복되게 사는 것입니다.

복음 안에서 사는 인생만이 의미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끝으로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승리의 확신을 심어 줍니다.

(롬 16:20)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탄을 너희 발 아래에서 상하게 하시리라 우리 주
예수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사단은 늘 교회를 공격하고 미혹하는 일을 합니다.

그렇지라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것은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하나님은 승리의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안에 있기만 하면 반드시 승리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눈에 보이는 것들 뿐만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영들도 함께 존재합니다.

눈에 보이는 것은 오히려 빙산의 일각이라고 합니다.

세상에서 보이지 않는 영들이 치열한 영적 싸움을 벌리고 있습니다.

선한 영인 천사와 악한 영인 사단, 마귀, 그들의 쫓개들인 귀신들과의 싸움입니다.

그것들은 교회와 성도들을 특별히 표적으로 삼아 공격하고 미혹합니다.

로마 교회는 사도 바울의 경고를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았음이 역사를 통해 증명되었습니다.

후에 사단의 역사로 부패하여 결국은 종교 개혁까지 일어나지 않으면 안되는 상황으로까지 치달았습니다.

하나님이 꿈꾸는 교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 지난 2,000 년간 사단의 역사로 인해 끊임없이 분쟁과 분열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다 보니 복음에 대한 증거력은 약해졌고 온갖 이단들이 난무합니다.

마지막이 가까와질수록 사단의 역사는 더욱 심해질 것입니다.

이같은 말세지말을 살아내야 하는 우리 성도들은 정신을 바짝 차리고 사단의 역사를 막아내야 합니다.

먼저 교회 내에 사단이 들어와서 활동하고 있는지 주의 깊게 살펴야 합니다.

교회 안에는 스스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지만 그리스도인이 아닌 이단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교회 지도자들은 이단들이 교회 안에 양의 탈을 쓰고 침투해서 성도들 사이에 분쟁을 일으키고 분열을 초래하는지 살펴 성도들을 지켜내야 합니다.

또한 이단들이 교회에 발을 붙이지 못하도록 막아야 합니다.

성도들도 복음의 진리에 지혜로워야 합니다.

그리고 끝까지 하나님만을 신뢰해야 합니다.

우리는 사단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써 이미 승리해 놓은 싸움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단과 마귀, 그들의 쫓개인 귀신들은 이미 예수님께 패배한 것들입니다.

예수님의 부활로 말미암아 사단의 머리가 깨져 버렸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성도들로 하여금 사단의 깨진 머리를 발로 밟게 하실 것입니다.

(신 33:29)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으로다 여호와와 구원을 너 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나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네 영광의 칼이시로다 네 대적이 네게 복종하리니

네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성도된 우리는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를 돕는 방패가 되시고 영광의 칼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결국 우리의 대적들이 우리에게 복종하게 될 것입니다.

승리의 말씀을 받은 우리 모두는 지금 이 순간부터 이 사실을 믿고 소망 가운데 독수리 날개치듯
힘차게 세상을 사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승리의 기쁨도 만끽하시기 바랍니다.